

지역 소식 통

정읍시, '귀농체험 현장
실습학교' 참가자 모집

정읍시 귀농귀촌센터(이사장 허삼권)가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체험 현장실습학교' 참가자를 9월 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정읍의 농촌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정착 정보를 한지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과정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타 도시 거주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선진 귀농인 농장 견학으로 실제 영농 노하우를 듣고, 동학기념관 방문으로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이해한다. 정읍 대표 힐링 콘텐츠인 쌍화차 체험도 더해 정읍의 '맛·멋·향'을 폭넓게 느끼게 한다. 현장 활동과 문화·관광·홍보를 결합해 체류형 유입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그린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와 참가 안내는 귀농귀촌지원센터가 맡아 사전 준비부터 정착 상담까지 지원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장760 농업회사법인
건강한 먹거리 생산품 기탁

부안군 주산면 소재 농장76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대표 염수현)는 25일 주산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생강청 150병과 굴청 150병, 딸기잼 100병을 기탁했다.

주산면(면장 나용성)에서는 관내 경로당 및 소외계층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기탁자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계획이다. 농업법인 '농장760'을 운영 하는 염수현 대표는 지역농가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유류, 가공, 판매 및 농어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몇 년째 먹거리 생산품을 주산면에 기탁하며 나눔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나용성 주산면장은 "매년 기부 문화 확산에 참여해 주시는 염수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생산업체가 유입되어 지역사회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해풍고추축제 성황리 마무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일원서... 1800여명 지역 주민 · 관광객 참여

제29회 고창해풍고추축제가 1800여명의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자연이 키운 매운맛, 고창해풍고추를 주제로 지난 23~24일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일원에서 열린 제29회 고창해풍고추축제는 해풍고추 직거래 장터, 해풍고추 김치 만들기, 해풍고추 품평회 등 많은 프로그램으로 고창해풍고추의 특징과 우수성을 알렸다.

축제기간 동안 진행된 해풍고추 직거래장터에서는 농가가 직접 재배한 고품질 고추를 판매해 축제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첫날 열린 해풍고추 품평회에서는 고창군 관내 10개 고추 생산 농가들이 자식같이 키운 농산물 가지고 나와 고창해풍고추의 명성을 전국에 알렸다. 송진의 고창해풍고추축제위원장은



제29회 고창해풍고추축제가 1800여명의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고창해풍고추축제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건강한 환포와 맑은 공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재배된 품질 좋은 해풍 고추와 고

창 농특산품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호남권 광역 프로젝트 중심지 도약 준비해야”

권익현 부안군수, “전 군민 1인당 3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준비 철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25일 열린 8월 중 연석회의에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부안의 미래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행정 역량 총동원을 당



권익현부안군수

부했다고 밝혔다.

권익현 군수는 “호남발전특위 6개 분과위원회별 일정에 맞춰 군 핵심사업이 조기에 안전화되고 정치권·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호남권 광역 프로젝트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는 민생안정지원금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읍면 현장 홍보를 강화해 단 한 분의 군민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행정적 지원을 총동원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군은 이번 회의를 토대로 미래 성장 기반 확보와 군민 생활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고창군, 면 지역 10개 농협 하나로마트서 사용 가능

고창군이 면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관내 면 지역 10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고창사랑상품권’과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하나로마트) 확대 기준’에 따라, 점근상이나 판매품목·규모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하나로마트도 상품권 사용처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수·아산(아산점, 선운사점), 무장 공음, 상하, 해리, 성송, 성내, 부안 총 10개소의 하나로마트를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 완료했으며, 군민들은 오는 8월 22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고창읍, 대신, 심원, 흥덕 등 4개 지역은 하나로마트 인근에 유사한 규모의 민간마트가 위치해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번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추가 등록되는 하나로마트 10개소에서 고창사랑상품권 뿐만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약 2900개소에 이르며, 8월 22일 기준 최신 가맹점 현황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민생소비쿠폰 2차 지급 시기에 맞춰 오는 9월 22일부터 고창군에서는 “군민활력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 지급한다. 고창군에서 지급하는 군민활력 지원금은 사행성, 불건전 업종을 제외하고 관내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조치는 고창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부족했던 면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미신청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추가 접수

정읍시가 25일부터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시작해 지역 상권에 실질적 도움을 보낸다. 접수는 9월 12일까지다. 신청 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이번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경기 둔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버팀목을 키우는 데 방점을 뒀다. 지급 방식은 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이며, 자격 확인을 거쳐 10월 중 순차 지급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읍시에 있고, 사업장도 정읍시에 있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은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공동대표(법인 포함)는 대표 1인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매출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정읍시가 정한 제외 업종인 태안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도 해당하지 않는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학수 시장은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 이번 지원이 숨 고를 시간을 드릴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전국국악경연대회 성황리 폐막... 100여명 열전

지난 23~24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열린 제35회 정읍시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전국의 국악 인재와 예술인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 정읍지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관소리, 무용, 기악·가야금병창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경연은 층위별로 총합히 구성됐다. 초·중·등부와 신인·장년부가 23일에 무대를 올렸고, 고등부와 일반부는



24일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회 마지막 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정읍시장상을 비롯한 상장과 상금이 수여돼 영예의 순간을 장식했다.

올해 대회에는 약 100여 명이 참여해 기량을 뽐냈다. 치열한 호흡과 탄탄한 기교, 진한 감정이 어우러진 무대는 관객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고, 정읍이 품은 국악의 이름대함과 가치를 다시 한 번 널리 알렸다.

이학수 시장은 축하에서 “제35회 정읍시 전국국악경연대회가 참가자 여러분께 값진 경험과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정읍이 국악의 전통과 미래를 잇는 무대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친환경 농산물 ‘품목다양화’ 지원

정읍시가 2026년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지원사업 수요조사를 9월 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학교급식 등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품목을 넓히고, 지역 내 안정적 공급 체계를 세우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친환경 전환이 까다로운 과수·채소 분야에 생산관리 지원을 보태 다양한 품목의 친환경 생산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생산자단체 포함)로, 인증 면적이 노지 1000㎡ 이상이거나 시설재배

3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범위는 현장의 필요를 폭넓게 담았다. 단동·연동 하우스 같은 생산 시설과 관·배수 설비, 과수 재배시설을 비롯해 저온저장고와 보관창고, 선별장 등 유통 기반을 강화한다. 동력제초기, 고소작업차, SS기와 해충 방제 장비, 선별기·포장기 같은 작업 장비도 신규 구축과 개·보수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시설과 장비를 함께 보완해 생산부터 저장·선별·출하까지 연결되는 친환경 공급 사슬을 탄탄히 하겠다는 취지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